

보험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전략에 관한 연구

정세창^{1, a}, 선환규^a

^a홍익대학교 금융보험학과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다. 분석방법으로는 상관분석, 회귀분석, 분산분석, T -검정을 사용한다.

분석결과 첫째, 생명보험에서는 사회지표가, 손해보험에서는 환경지표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둘째, 지속가능점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기업의 규모와 재무건전성을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 규모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이는 지속가능성 성장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가 요구됨을 시사한다. 셋째, 분산분석 및 T -검정 결과 생명보험산업에서는 중소기업이 대형사에 비해 사회지표 및 명성지수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성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산업에서는 중소기업이 대형사에 비해 사회지표를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성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생명보험의 경우 사회지표 및 명성지표 측면에서, 손해보험의 경우는 경제, 환경, 명성 등의 측면에서 노력이 요구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주요용어: 지속가능경영, 명성지수, 회귀분석, 분산분석.

1. 서론

최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corporate sustainability management)이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지속가능경영의 개념이 보편화되기 전 기업경영은 주로 경제적 관점에 중점을 두었다.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통한 주주 이익 극대화가 기업경영의 목표이었으며, 이때 가치는 경제적 가치를 의미하였고, 단기적 관점에서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였다.

하지만 경제적 가치에만 국한된 경영으로는 기업의 장기적 생존이 어렵고, 보다 거시적 통합적 차원에서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기업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환경적 및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 결과 기업의 의사 결정, 자원배분 등의 경영활동에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통합적 경영전략을 수립 시행하는 지속가능경영의 개념이 발전하게 되었다.

지속가능경영의 실천은 주로 비금융기업인 제조, 유통회사 등에서 발전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금융회사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금융권에서 사회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한 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또는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이고, 이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지 못해 보험회사가 지속가능경영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경영활동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참조 대상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험회사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필요한 과제가 무엇

¹ 이 논문은 2010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a 교신저자: (339-701)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안리 300, 홍익대학교 상경대학 금융보험학과, 부교수.

E-mail: scjung@wow.hongik.ac.kr

인지를 관련 문헌 및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의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경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러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보험회사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향후 보험 및 금융산업에서 주요 이슈가 될 지속가능점수를 산출함으로써, 보험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경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지속가능점수간 관계 및 지속가능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또한 보험회사간 지속가능점수에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여 보험회사 그룹별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어떤 측면에서 경영자원이 배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하고자 한다. 이는 은행, 증권 등 타금융권의 지속가능경영에도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제 1장 서론에 이어 제 2장에서는 지속가능경영의 개념 및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지난 30 여년간 기업경영의 목표이었던 주주 자본주의가 더 이상 그 효력을 상실하고 이제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기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및 배경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제 3장에서는 선진국 및 국제기구에서의 지속가능경영 사례를 소개한다. 제 4장에서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된 데이터 및 분석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제 5장에서 제시한다. 제 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한다.

2. 지속가능경영의 개념 및 중요성

지속가능경영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의 사회적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산업화에 따른 피고용인의 복지가 중요해지면서 부각되었으며, 이후 1930년대 대공황, 세계화와 다국적기업의 등장, UN, ILO, OECD 등 국제기구들의 활동이 증대되면서 오늘날에는 보편화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오늘날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기업의 대내외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그 중요도가 높아져가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그렇지 못하는 경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생존 및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우선 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소비자, 투자자 등 이해집단의 요구를 지적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투명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 여부를 식별하기 용이해졌다. 이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은 기업의 장기적 이익과 직결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1990년대 나이키의 아동고용(1990년대 중반 나이키는 축구공을 꿰매는 12살 소년의 모습이 담긴 사진으로 인해 주가가 37% 이상 급락하였음), 2000년대 회계부정과 관련된 엔론과 월드컴의 분식회계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경제적책임, 환경적책임, 그리고 사회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포함한다(이중서, 2010, p.213). 지속가능경영의 개념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경영에 대해서는 국제기구, 학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어 아직 지속가능경영의 개념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연구를 보면 기본적으로 경제, 환경, 사회 세 가지 축(triple bottom line)을 포함하여 동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속가능보고서의 지침을 입안하기 위한 연구센터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는 1997년 유엔환경계획(UNEP;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과 미국의 NGO인 CERES(Coalition for Environment Responsible Economics)가 공동으로 설립한 UN협력기관으로 네덜란드에 본부를 두고 있음. CERES는 1989년 엑슨사의 유조선 발데스호가 알래스카 해안에서 침몰하여 발생한 대규모 환경오염 사건을 계기로 환경운동가, 투자자 그룹, 은행, 종교단체 등에 의해 결성된 조직임)

의 지속가능경영의 목표는 경제적 성과, 환경적 성과, 사회적 성과인 세 가지 측정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GRI 지속가능성보고서 지침의 영향으로 최근 동 분야에서의 연구는 세 가지 축으로 지속가능경영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이병두 (2005)는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경영활동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정의하고 있다. 정재욱 (2007)은 기업이 지속적인 기업가치의 유지 및 증대라는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활동방향과 자원배분을 결정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신철호와 김재은 (2008)은 세 가지 축에서 기업이 윤리, 혁신, 창조적인 방법을 통해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해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여 기업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정의하고 있다.

보험부문에서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개념도 세 가지 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UNEPFI (2007) 산하 IWG(Insurance Working Group of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로 유엔환경계획/금융이니셔티브 중 보험 작업반을 의미함)의 경우는 보험회사의 지속가능경영을 정의하고 있는데, 장기간에 걸쳐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부문에서 보험회사의 비즈니스가 실용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개념을 토대로 지속가능경영을 정의하고자 한다. 즉, 보험회사의 지속가능경영을 보험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의사결정을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은 기업의 대내외 환경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기업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진화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기업 시스템은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환경 요인에 적응하면 살아남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도태하기 마련이다.

최근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은 다양해지고 있으며, 장기적이고 사회적 특성이 강조되는 추세로 되고 있다. 1980년대를 전후한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 시대에서는 이해 당사자 중 주주의 영향력이 가장 지배적이었다. 그 결과 기업의 존재 목적이 주주 이익의 극대화에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주주 이외 소비자, 근로자, 지역사회와 사회전반 등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들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소비자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향후 자본주의는 고객자본주의 시대(the age of customer capitalism)가 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 결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니즈를 만족시키고, 단기적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 측면에서의 경영전략의 수립을 기업에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영이 지속가능경영이며, 향후 모든 유형의 기업이 지향하여야 할 방향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Googins (2008)는 주주자본주의로 어려움에 처한 자본주의를 구하기 위해서 지속가능경영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으로 인해 점차 많은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금융산업의 경우 예를 들면 골드만삭스는 2006년 사회적책임 측정지표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투자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생태리스크에 부합되는 보험료 결정(eco-insurance premium)으로 환경적 책임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경영 활동은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은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기업가치와의 관계로도 설명할 수 있다. 기업이 사회적책임 경영을 수행할 때 기업가치가 올라간다는 실증연구가 이를 뒷받침한다. 예를 들어 Al-Tuwaijri 등 (2004), King과 Lenox (2001), Waddock과 Graves (1997), Chen과 Metcalf (1980)의 연구에서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기업가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대한상공회의소 (2007)의 연구에서 사회적책임의 성과가 높은 기업들의 기업가치가 더 높게 나타났다.

3. 지속가능경영의 사례

국내 금융회사는 사회적 의무감에서 관련 활동을 하는 반면 선진 금융회사는 경영전략 차원 및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보험 및 금융분야에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영국 은행의 지속경영 사례 (황병우, 2007)

맨체스터에 본점을 두고 있는 지방은행인 Co-operative Bank는 1992년부터 기업여신에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인권, 무기거래, 기업의 책임감, 유전자 조작, 기업의 사회 공헌, 환경보호, 동물보호라는 7개 기준을 두고 이에 부합 여부에 따라 여신을 결정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권을 해치는 기업, 무기 제조 및 판매 기업, 담배 제조 및 투기자금 등의 기업 및 사업, 유전자 조작 사업, 환경과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동물실험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여신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공정거래나 노동권을 중시하는 기업, 사회적 책임감이 높은 기업, 동물 복지사업 등에 대해서는 여신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Co-operative Bank의 윤리경영은 주주와 고객,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그 결과 윤리경영을 적극 지지하는 고객의 은행 이익 기여도가 2001년 14%에서 2003년 17%로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영국에서 리테일 고객이 가장 많은 대형은행인 HBOS는 지속가능경영 성과 지수를 은행의 비즈니스 평가체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속가능경영 성과 지수는 주주, 고객, 직원, 공급자, 사회와 관련해 총 48개로 구성되며 이에 대한 측정을 바탕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주주와 관련된 지표로는 주주의 이익을 증진하고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ROE, 각 부문별 배당성과, 사회책임투자, 애널리스트와의 접촉 횟수 등으로 활동을 평가하고 있다. 고객과 관련된 지표로는 문제 발생 시 직원들의 고객응대태도, 고객불만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평가한다. 직원과 관련된 성과로는 직원상호 간의 신뢰비율, 공평한 기회제공을 위한 성별, 인종, 연령, 장애인 비율 등을 측정하고 있다. 공급자와 관련해서는 기술이나 지식을 개발하기 위해 공급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기회를 부여했는가 등으로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와 관련해서는 은행과 거래하는 우수한 채권 거래자 수, 세금, 배당금, 총급여 등의 평가항목을 두고 있다.

영국 대형은행의 또 다른 사례로 RBS(Royal Bank of Scotland)의 지역사회 대응 프로그램이 있다. RBS는 2005년 말 기준 현금 약 123억원, 현물 약 233억원, 사회봉사 약 35억으로 총 약 391억원을 투입하여 총 8개의 지역사회 대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8개의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금융교육프로그램으로 약 569명의 직원이 1천 여개의 초중고학교 및 대학교 학생들에게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두 번째, 재무상담프로그램으로 재무상담사들이 일대일로 무료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세 번째는 결손가정에 대한 전화상담프로그램으로 영국 금융회사로는 가장 많은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네 번째는 대학을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학을 방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학교 운동장 개선하는 놀이환경조성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여섯 번째는 14세에서 25세의 불우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재정지원,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일곱 번째는 불우 아동을 위한 기술훈련프로그램으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술의 습득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한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장애아동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3.2. 생태보험(Eco-insurance, Lovink 등, 2004)

생태보험을 이해하려면 우선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생태발자국

이란 1996년 캐나다 경제학자 마티스 웨커네이겔과 윌리엄 리스가 개발한 개념이다. 이는 인간이 자연에 남긴 발자국을 뜻하는 말로, 인간이 지구에서 삶을 영위하면서 의식주 등을 만들기 위해 자원을 생산하고 그것을 폐기하는데 드는 비용을 토지로 환산한 지수이다.

지구가 기본적으로 감당해 낼 수 있는 면적 기준은 1인당 1.8ha이며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 면적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1995년을 기준으로 이 기준점을 넘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3.0ha에 이르러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생태발자국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줄이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여 환경오염의 가속화와 자원의 고갈을 막아야 한다.

생태보험은 생태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보험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한 방법이었듯이 지구의 생태리스크를 관리하는 한 방법으로 생태보험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생태발자국의 측정을 통해 생태계가 복원되어야 할 부분(ecological debt)을 산출할 수 있으며 이를 생태리스크의 대리치로 사용한다. 생태리스크의 정도가 측정되면 이에 부합되는 생태보험료(eco-insurance premium)를 산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거수된 생태보험료는 생태발자국을 줄이는데 투자되어 지구 생태리스크를 감소시키는데 활용된다.

3.3.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금융 및 보험권의 국제적 노력 (산은경제연구소, 2007; UNEPFI, 2007)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금융권의 국제적 노력의 대표적 사례로는 유엔환경계획/금융이니셔티브(UNEPFI)와 지구온난화가스 공개 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의 활동이 있다. UNEPFI는 1992년 지구정상회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세계적 합의가 형성되면서 Deutsche Bank, UBS와 같은 금융회사들의 제안으로 설립된 유엔 산하기구이다. UNEPFI는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투자, 지속가능경영 및 보고기준 등에 대해 산하 분과를 운영하고 있다. 기후변화 분과에서는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온실가스 보고 양식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지속가능 투자 분과에서는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시 투자대상 기업의 지속가능성 위험과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 지속가능경영 및 보고기준 분과에서는 금융서비스 산업을 위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의 기준 개발 및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CDP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프로젝트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1992년 체결된 협약이다. 동 협약은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농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시키기 위해 1997년 교토의정서가 채택되면서 국가별로 감축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보험권에서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국제적 노력은 UNEPFI 산하 보험 작업반의 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 작업반에서는 지속가능 이슈를 환경변화, 소액보험(microinsurance), 노후 소득보장(lifelong income), 건강, 유전자조작 음식 및 나노기술과 같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emerging manmade risks), 환경배상책임, 자연자원, 재활용, 내부운영 효율성(internal efficiency) 등 9개를 규정하고 각 이슈별 보험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은 건강과 재활용이라는 지속가능이슈 측면에서 보험의 역할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노후 소득보장 이슈와 관련하여서는 저축성 생명보험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4. 데이터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09 ERISS(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Sustainable Society) 한국 보험산업 지속가능지수'를 기초 데이터로 사용한다 (안치용, 2009a, b). 동 지속가능지수는 지속가능경영의 지표 산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GRI 가이드라인을 수정 보완하여 보험회사의 지속가능경영의 개념을 정의하여 측정하고 있다. 계량평가뿐 아니라 명성지수도 포함하여 각 회사의 지속가능점수를 산출하고 있다.

표 1: 경제적 지표 산출 방식

분류	기준	지표	지표설명	산식
주요 재무 비율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생보: 수입보험료/총자산 손보: 보유보험료/총자산
		수익성	총자산영업이익률	총영업이익/총자산
		성장성	수입보험료증가율(생보) 보유보험료증가율(손보)	증가율
		안정성	지급여력	지급여력비율
경제 지속 성장성		기업주가	자기자본상승률(생보) 주가상승률(손보)	생보: 자기자본상승률/생보업종평균상승률 손보: 주가상승률/동업종주가상승률
		R&D 수준	Soft 측면의 투자	협회 배타적사용권 부여건수 및 신청건수
		계약유지	13 + 25회차 유지율	(13회차 유지율 + 25회차 유지율)/2
		해외점포현황	해외점포현황	해외점포갯수
이해 관계자 부분		법규준수	법규위반내용	위반건수(기관/임직원/공정위)
			사회공헌수준	기부금/영업이익
			Tax	법인세비용
		기업지배구조	투명성/독립성/주주가치	손보: 100대기업 평가와 동일 생보: 상장여부

계량평가는 경제, 환경, 사회 세 가지 측면에서 측정하고 있으며, 각각 60%, 15%, 25%의 가중치를 두고 있다. 전체 지속가능지수 점수에서 계량평가의 가중치는 60%이다. 명성지수의 가중치는 40%로 계량평가와 합산하여 전체 지속가능점수가 산출된다. 이러한 가중치를 둘 경우 기업지속가능지수의 총점을 1,000점 만점으로 할 경우, 경제 지표 360점, 사회 지표 150점, 환경 지표 90점, 명성지수 400점이 된다.

계량평가 중 경제적 지표는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경제적 지표에 사용된 데이터는 FY2005, FY2006, FY2007이며, 각각 20%, 30%, 50%의 가중치를 두어 산출하였다. 경제적 지표는 주요재무비율, 지속성장성, 이해관계자부분, 기업지배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재무비율 중 활동성은 총자산이 얼마나 활발하게 운용되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이는 총자산 대비 보험회사의 매출액이라고 볼 수 있는 보험료로 측정하고 있다. 수익성은 ROA로 측정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경우 규모 대비 자기자본의 편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ROE보다는 ROA가 수익성으로 더 적합하다. 성장성은 생명보험의 경우 수입보험료 증가율로 측정하고, 손해보험의 경우는 보유보험료 증가율로 측정한다. 안정성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의 대표적 지표인 지급여력비율로 측정한다.

지속성장성은 기업주가, R&D 수준, 계약유지, 해외점포현황으로 구성된다. 주가실적을 통해 보험회사의 가치를 포괄적으로 평가하는데, 생명보험의 경우는 2007년 당시 상장된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생보업계 자기자본상승률 평균대비 각 회사의 상승률로 측정하였다. R&D 수준은 생명보험의 경우 생명보험협회의 배타적 사용권 부여 및 신청 건수로 측정하였으나, 손해보험의 경우 해당 건수가 얼마 없어 제외하였다. 계약유지는 13회차와 25회차 유지율의 평균으로 산출하였다. 해외점포현황을 지속성장성에 포함시킨 이유는 국내 보험수요의 포화 및 신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해외 진출이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이해관계자부분은 법규위반, 사회공헌수준, 세금 세 가지 지표로 측정한다. 법규위반은 금감원, 공정위로부터의 제재조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사회공헌수준은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액으로 산출하였으며, 법인세를 세금의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경제적 지표 중 마지막으로 기업지배구조 점수는 증권거래소 산하 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와 사회책임투자(SRI)컨설팅 기업 서스틴베스트의 점수를 받아 평균하여 산출하였다. 생명보험회사의 경우는 당시 상장사가 없었기 때문에 공개된 정보를 구할 수 없어 제외하였다.

표 2: 환경적 지표 산출 방식

분류	기준
환경분야	환경방침 제정 및 이행 여부
	환경담당 임원 및 전담조직 유무
	환경보고서 또는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여부 및 검증
	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저감 계획
	에너지 절감 및 개선 정도
	녹색구매 방침 제정 및 이행
	직원 대상 환경 교육 실시
	금융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환경요소 반영 여부
	환경 관련 금융 상품 활성화 정도

표 3: 사회적 지표 산출 방식

분류	구분	지표	출처
사회분야	제품책임	고객만족 활동	업체자료
		금감원평가자료(민원발생현황)	금감원 평가자료
		장애인보험, 기부보험 등 사회약자배려 상품개발 여부	업체자료
		장애인 등 사회약자 배려 상품판매 정도	업체자료
	노동	고용 총인원	사업보고서
		13월차 실계사 등록 정착률	금감원 공시자료
		이사회 여성 구성비(성, 연령, 소수계층 등 다양성 지표 기준)	사업보고서
		고용평등대상 수상실적	노동부
	인권	차별시정건수	인권위
		장애인고용률	장애인고용공단
		고령자고용률	노동부
		쟁의건수	중앙노동위
	사회	지역사회	기사
		소송현황	기사/검찰청

경제적 지표는 생명보험의 경우 총 12가지 지표이고, 손해보험의 경우는 총 14가지 지표로 구성된다. 각 지표별로 표 1의 산식에 의해 산출한 후 지표가 양호한 순서대로 5점부터 1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였다.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대상기업이 21개사이어서 각 점수별로 4개의 기업을 균등 배분하고, 중간 점수인 3에 대해서만 5개 기업을 할당하였다. 손해보험회사의 경우는 10개의 회사가 분석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각 점수별로 2개의 회사를 균등 배분하였다. 각 지표별 가중치는 동일하게 부여하였다(예를 들어 생명보험의 경우 경제 점수 360점 중 주요재무비율, 지속성장성, 이해관계자 부분에 각각 120점을 부여하였고, 손해보험의 경우는 360점 중 주요재무비율, 지속성장성, 이해관계자 부분, 기업지배구조 각각에 90점을 부여하였고, 각 지표 내의 세부기준에 대해서도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

계량평가 중 환경적 지표는 표 2에 요약되어 있다. 환경 지표는 환경 부문 전문가가 각종 환경보고서와 지속가능보고서를 토대로 크게 7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10개 항목을 개발했다. 주요평가 항목으로는 환경방침 제정 및 이행여부, 환경보고서 또는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여부 및 검증, 에너지 절감 및 개선 정도, 금융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환경요소 반영여부 등 총 10개의 세부항목으로 나뉜다. 금융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환경요소 반영여부 등 상기 4개 항목에는 다른 6개 항목의 2배로 가중치를 부여했다.

계량평가 중 사회적 지표는 표 3에 요약되어 있다. 사회분야의 지표들은 제품책임, 노동, 인권, 사회로 구분된다. 사회분야의 지표들은 회사자료 또는 금감원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구하여 점수를 산출하였다. 사회적 지표의 총 점수는 150점인데, 제품책임, 노동, 인권, 사회의 최고점을 각각 65.625,

표 4: 명성지수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명성지수	CEO 리더쉽
	경영성과
	혁신성
	상품/서비스 품질
	재무성과
	시장흐름 인지 대응력
	비전과 목표
	신뢰감
	좋은 인상
	사회적 책임준수
	국제시장 인정역량
	15 ~ 20년후 생존
	공정한 경쟁
	계약자 권익보호

표 5: 평가지표간 상관분석(생명보험)

구분	환경	사회	명성
경제	0.362	0.619*	
환경		0.471	
사회			
계량			0.812**

*, **는 각각 10%, 5% 수준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함.

표 6: 평가지표간 상관분석(손해보험)

구분	환경	사회	명성
경제	0.655**	0.442	
환경		0.703*	
사회			
계량			0.879**

*, **는 각각 10%, 5% 수준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함.

28.125, 37.5, 18.75로 두어 산출하였다.

사회분야 중 사회영역의 지표들은 GRI 기준에 맞는 평가 자료의 확보가 어려워 사회영향평가 틀을 만들어 적용했다. 예를 들어 사회 중 지역사회는 신문, 방송기자 120명을 대상으로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 3가지 키워드(비자금, 로비, 정경유착)를 도출하여 해당 기간 9개 종합 일간지에 노출된 빈도로 측정하였다.

총 400점의 명성지수는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학계 등 전문가 77명을 설문 조사해 산출됐다(한국 100대 상장사 지속가능지수 평가에는 일반인, 대학생, 오피니언리더 등이 포함되었으나, 보험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이들은 제외하고, 금융감독원에서 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자, 보험학 전공의 교수, 보험개발원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명성지수를 산출하였음). 명성지수의 평가 항목은 표 4에 나타나 있다.

연구대상 기업은 생명보험회사 21개사와 손해보험회사 10개사이다. 신규설립 및 재보험사, 단종보험사, 서울보증과 같은 전업사, 외국지점은 평가 및 비교의 어려움으로 제외하였다.

연구방법은 지수간 상관관계 분석, 산출된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각 보험산업내 그룹간 차이 검증을 위해 분산분석 및 T-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7: 회귀분석 결과

구분	종속변수	규모	지급여력	F
생명보험	계량	0.657**	0.096	6.873**
	명성	0.787**	0.001	14.622**
	종합	0.731**	0.061	10.228**
손해보험	계량	1.383*	-0.667	7.773*
	명성	1.293*	-0.492	11.275**
	종합	1.405**	-0.630	11.691**

*, **는 각각 10%, 5% 수준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함.

표 8: 분산분석(생명보험)

구분	회사분류	평균값	F값
경제	대형사	241.5	1.82
	중소형사	205.1	
	외자계	206.3	
환경	대형사	23.5	0.46
	중소형사	23.1	
	외자계	18.8	
사회	대형사	98.9	4.75** (대형과 중소형사간 5% 수준에서 유의)
	중소형사	85.6	
	외자계	84.1	
계량	대형사	363.9	2.46
	중소형사	313.9	
	외자계	309.2	
명성	대형사	224.9	4.95** (대형과 중소형사간 5% 수준에서 유의)
	중소형사	184.3	
	외자계	180.1	
종합	대형사	588.8	3.55* (대형과 중소형사간 10% 수준에서 유의)
	중소형사	498.2	
	외자계	489.3	

*, **는 각각 10%, 5% 수준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함.

5. 연구 결과

평가지표간 상관성의 정도를 보면 생명보험의 경우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선 계량지표와 명성 지표간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계수가 0.812이며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량지수간에는 경제지표와 사회지표만 상관성이 있고 나머지 경제지표와 환경지표간, 환경지표와 사회지표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손해보험의 경우는 표 6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생명보험의 상관분석과 동일하게 계량지표와 명성 지표간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계수가 0.879로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계량지수간의 결과는 생명보험의 경우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경제지표와 환경지표간, 환경지표와 사회지표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보여주는 반면, 생명보험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준 경제지표와 사회지표간 상관성은 유의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 성과변수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가 표 7에 나타나 있다. 표 7의 회귀분석에서는 규모와 재무건전성이 지속가능 성과변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 결과 기업의 규모는 계량지표, 명성지표, 종합점수 모두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은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T-검정(손해보험)

구분	회사분류	평균값	F 값
경제	대형사	266.1	22.18**
	중소형사	174.3	
환경	대형사	33.4	6.51**
	중소형사	18.0	
사회	대형사	105.2	3.23
	중소형사	92.3	
계량	대형사	404.7	29.83***
	중소형사	284.6	
명성	대형사	226.9	38.11***
	중소형사	161.8	
종합	대형사	631.7	51.51***
	중소형사	446.4	

, *는 각각 5%, 1% 수준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함.

이러한 결과는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지속가능성장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으로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필요요건으로 기업의 규모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규모의 중요성은 종합점수만을 비교해볼 때 손해보험의 경우가 생명보험의 경우보다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재무건전성의 경우는 지급여력이 높은 기업일지라도 지속가능성장에 관심이 없는 기업이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그룹별 차이 검정 결과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에 대해 표 8과 9에 나타나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 계량지표 중 사회지표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검증되었다. Scheffe 사후 검정 결과 대형사와 중소기업사(대형사는 규모 기준으로 상위 4개사, 중소기업사는 외자계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로 분류함)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형사가 중소기업사에 비해 사회지표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명성지수와 종합점수의 경우도 사회지표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중소기업사의 경우 지속가능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지표와 명성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경영자원을 배분하는 노력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손해보험의 경우는 생명보험과 달리 거의 모든 지표에서 대형사와 중소기업사(대형사는 규모 기준 상위 5개사, 나머지 5개사는 중소기업사로 분류함)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지표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표에서 대형사의 점수가 중소기업사의 점수보다 통계학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 환경, 명성 등의 모든 측면에서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6.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의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지속가능점수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분석결과 첫째, 경제지표와 관련성 측면에서 생명보험에서는 사회지표가, 손해보험에서는 환경지표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보험산업의 성격 및 특성을 잘 반영한 분석결과라고 보아진다. 즉, 생명보험의 경우는 장기적 특성, 고용인원 수가 손해보험보다 많은 등의 사회적 특성이 손해보험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의 경우는 취급하는 상품이 환경, 기후와 관련된 경우가 생명보험보다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기업의 규모는 지속가능점수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정(+)의 영향

을 미치는 반면, 재무건전성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볼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 규모가 필요조건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차이 검정결과 생명보험산업에서 중소형사는 사회지표 개선과 명성지수를 제고시킬 수 있는 전략대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원, 노동, 약자 고용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경영 자원을 배분하는 활동을 하여야 할 것이다.

손해보험산업에서는 중소형사가 대형사에 비해 사회지표를 제외한 모든 측면에서 성과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중소형사의 경우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제, 환경, 명성 등의 모든 측면에서 자원을 할당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환경 특화 상품의 개발로 환경지표의 개선뿐만 아니라 수익성 및 기업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대한상공회의소 (2007).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기업가치 -CSR이 기업 높이는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 산은경제연구소 (2007).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금융의 역할>, 산은경제연구소 산업분석 2팀.
- 신철호, 김재은 (2008). 지속가능경영의 현황과 과제, <임금연구>, 가을호, 72-81.
- 안치용 (2009a). <2009 ERISS 한국 생명보험 지속가능지수 평가 보고>, ERISS.
- 안치용 (2009b). <2009 ERISS 한국 손해보험 지속가능지수 평가 보고>, ERISS.
- 이병두 (2005). <지속가능경영과 사회적 책임>, Deloitte.
- 이중서 (2010). 유럽연합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현황과 전망, <국제지역연구>, **14**, 209-236.
- 정재욱 (2007). 지속가능경영과 보험산업의 실천과제, <손해보험>, April, 15-24.
- 황병우 (2007). 영국 은행들의 지속가능경영 사례, <대은경제리뷰>, **211**, 70-75.
- Al-Tuwaijri, S. A., Christen, T. E. and Hughes, K. E. (2004). The relation among environmental disclosure, environmental performance, and economic performance: A simultaneous equations approach, *AOS*, **29**, 447-471.
- Chen, K. H. and Metcalf, R. W. (1980). The relation between pollution control record and financial indicators revisited, *Accounting Review*, **55**, 168-177.
- Googins B. (2008). Saving capitalism: Next generati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genda, LIG 50주년 기념세미나.
- King, A. A. and Lenox, M. J. (2001). Does it really pay to be green? An empirical study of firm environmental and financial performance, *Journal of Industrial Ecology*, **5**, 105-116.
- Lovink J. S., Wackemagel, M. and Goldfinger, S. H. (2004). *Eco-Insurance: Risk Management for the 21st Century*,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ecurity.
- UNEPFI (2007). *Insuring for Sustainability*, IWG of UNEFP Finance Initiative.
- Waddock, S. A. and Graves, D. B. (1997). The corporate social performance-financial performance link,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8**, 303-319.

The Strategies for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Insurance Companies

Se Chang Jung^{1,a}, Hwan kyu Seon^a

^aFinance and Insurance Division, College of Business Management, Hongik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measures and analyzes the performance of insurance companies in Korea in respect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uggest strategic implications based on the analysis. The correlation, regression, ANOVA, and *t*-test are employ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shows that social index is important in the life insurance industry; however, the environmental index, is important in the non-life insurance industry. Second, the result gained by regressing the size and financial soundness on the performance of sustainable development demonstrates that the size variabl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It suggests that size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inally, ANOVA shows that the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have a significantly poor performance compared to the large companies concerning the social index and reputation index in the life insurance industry. The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in the non-life insurance industry exhibit a significantly poor performance compared to the large companies in respect to all the indexes, except for the social index. Therefore, the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make every endeavor in the poor indexes to improve performance.

Keywords: Corporate sustainability management, reputation index, regression, ANOVA.

This work was supported by 2010 Hongik University Research Fund.

¹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Finance and Insurance, Hongik University, 300 Shinan, Jochiwon, Yeongi, Chungnam 339-701, Korea. E-mail: scjung@wow.hongik.ac.kr